2021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수기 공모전

창의적 사고 역량 우수상

강○구(행정학과)

성결 튜터링

내 용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동기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2학년을 마치고 개인사정 때문에 1년동안 휴학을 했다가 이번년도에 3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었다. 고작 1년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한 것 뿐인데 그 1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바뀐 체제가 낯설었던 때였다. 이 얘기를 들은 학교를 꾸준히 다니고 있던 친구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었고 이 튜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며 추천을 해줬다. 나는 행정법이라는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였고 그 친구도 먼저 들었던 과목이라 그 친구와 튜터링을 하기로 했다. 튜터링을 하게 되면 복학 후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해당 과목에 대해 지식 습득과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여 튜터링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교과목을 수강해서 A학점을 받거나 자격증 고득점 소지 학생이 튜터가 되고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동일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 학생들이 튜티가 되어 함께 팀을 이루어 다양한 전략으로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팀은 튜터 1명에 튜티 2명~5명으로 최소 3명으로 구성된다. 학습 공동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시간을 정할 수 있고, 최소 16시간 이상의 활동시간을 채워야 한다. 주차별 활동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활동 5주차 내에 온라인 학습법 특강을 이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같은 학과 동기 3명이서 행정법 과목을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그룹을 이루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학습방법은 줌 화상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여건이 될 때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우리 그룹은 궁극적인 목적이 수업 내용 이해와 최종 성적이였기 때문에 튜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을 꾸려나갔다. 행정법 수업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판례 케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수업이여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법률의 판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참조조문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판결의 근거와 타당성을 이해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비슷한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여 이해력을 높이려고 하였고,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결론 및 견해를 작성하는 활동 등을 하였다. 튜터링을 통해 해당 과목의 학습 방향을 잡았고 미숙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보완하였고 튜터의 경험적인 여러 꿀팁들을 더해져 A+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의 관련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튜터링을 하면서 각자 자신들

만의 다양한 전략으로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무엇일지 자유롭게 정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았다. 선택한 교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판례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초점을 그것으로 옮기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습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원과 이미 좋은 결과를 얻어낸 튜터의 경험과 생각을 듣게 되었다. 내게 해왔던 방법과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과 접목시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 같다. 또한 튜터링을 하면서 실제 여러 판례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들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다각도로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 정보를 응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해당 과목의 내용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 나와 같은 학생을 튜터로 두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더 잘 이해를 해주고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학습의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그룹원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들과 방법들을 접할 수 있었고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튜터링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매주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한 해석을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성이 자연스레 요구되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지만 주제를 전공의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전공과도 연관성이 생기고 해당 과목의 지식 습득과 좋은 성적이 함께 따라오게 된 것도 좋았다. 나는 이번에 튜터링 학습주제를 전공과목으로 했지만 토익, 토플 같은 중요한 스펙 점수와 여러 자격증 취득도 학습주제로 삼아 튜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다. 또 이 튜터링 프로그램은 튜티에게도 선택 주제의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튜터에게 좀 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 학습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그룹원들을 이끌어가고 학습 계획들을 세우며 자신의 전략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는 이번에 필요한 과목이 같은 그룹원들을 사전에 미리 구해서 같이 신청했기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지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과목이나 자격증에 지원한 튜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튜터가 전문 강사가 아닌 똑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지원자가 나와야 하는 것이니 만큼 프로그램의 정보와 혜택들이 더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학을 하고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단체 톡방에서 공지가 한번 올라왔을 때도 뭔가 유심히 보게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친구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듣게 되었고, 듣고 나서야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과성적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필요한 교과목과 자격증에 대해서 학습방법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거나 자연스러운 복습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들어야 하는 수업 과목 중에 자신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들이 있을 것이고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튜터링을 통한다면 미리 경험해보고 좋은 성적까지 거둔 같은 학생이 유용한 조언과 학습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한결 수월하게 공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튜터링 활동을 통해 해당 과목 내용에 대한 복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그룹원들의 서로 다른 학습방법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견해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부족한 전략적 사고능력과 창의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 대상에게 이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한다면 “나도 막막했던 과목 A+을 받았으면, 너도 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싶다.